

성문밖학교 여러분께

편지 고맙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받은 다케시마(독도)문제에 관한 편지를 몇 번이나 되풀이 읽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쓰여진 내용을 정리하여, 여러분이 생각한 역사와 그에 관한 저의 느낀 바를 말씀 드릴테니, 다 같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1) 안용복(安龍福)의 활동으로 독도는 한국령이 되었다.

(2) 「태정관 지령(太政官指令)」에서 독도는 일본령과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3) 『세종실록(世宗實錄)』의 「지리지(地理志)」에서 독도는 울진현에 속하고, 울릉도에서 가깝다고 하고 있다.

(4)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는, 신라 장군 이사부(異斯夫)가 울릉도와 독도를 신라의 영토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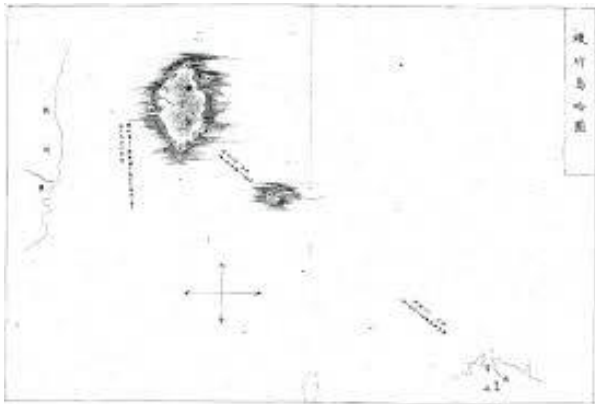
(1) 안용복의 활동이라는 함은, 1696년 6월 안용복이 돛토리 번(鳥取藩)에 건너와서 돛토리 번주(藩主)와 교섭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에도 막부가 울릉도 항해를 금지한 것은 1696년 1월입니다. 안용복이 돛토리 번에 온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5개월 후의 일입니다. 에도 막부는 안용복이 돛토리 번에 오기 전, 울릉도 항해를 금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안용복의 활동으로 울릉도 항해가 금지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안용복은 돛토리 번주와 교섭한 적이 없으며, 에도 막부의 명령을 받은 돛토리 번에 의해 추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에도 막부가 편찬한 『통항일람(通航一覽)』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숙종실록(肅宗實錄)』에는 안용복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용복을 일본에 밀항한 범죄자로, 비변사(備邊司)에서 심문했을 때 안용복의 증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료나 문헌을 읽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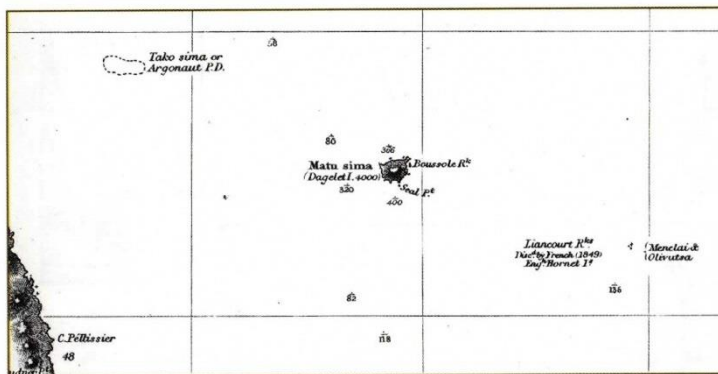
(2) 1877년 「태정관 지령」에는 “다케시마 외 일도(竹島外一島)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케시마 외 일도’를 시마네 현(島根縣)이 제출한 『이소다케시마 약도(磯竹島略圖)』^①만을 생각하면, 확실히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외 일도’의 마쓰시마(松島)는 다케시마(독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소다케시마약도』에 그려진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태정관 지령」의 ‘다케시마 외 일도’와 같은 섬이었던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해도(海圖)에는 울릉도가 마쓰시마로 표기되어 있어, 『이소다케시마 약도』에 있는 마쓰시마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해도에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외에, 현재 다케시마(독도)가 ‘리앙쿠르암’^②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정관 지령」이 나왔을 당시 해도에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 거기에 현재의 다케시마(독도) 세 섬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태정관이 이 해도를 참고하여,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다케시마(독도)는 ‘다케시마 외 일도’ 중에는 없습니다. 다케시마(독도)는 ‘리앙쿠르암’으로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이소다케시마 약도』에서 마쓰시마로 되어 있던 '리앙쿠르암'이 일본령이 되었을 때에는, 마쓰시마로 된 울릉도의 호칭이었던 다케시마가 붙여진 것입니다.



① 『이소다케시마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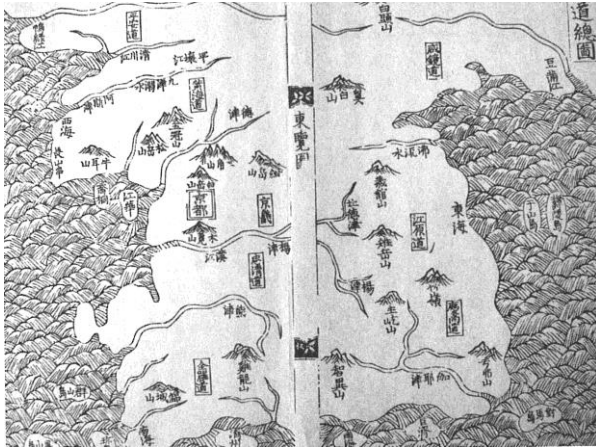


② 이진명(李鎭明)저, 『독도, 지리상의 재발견』(p.273)

(3) 울릉도에서는 다케시마(독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독도 바로 알기』 등 텍스트에서는 『세종실록(世宗實錄)』의 「지리지」에 기록된 '보인다'를 울릉도에서 우산도가 '보인다'고 해석하여, 울릉도에서 보이는 우산도는 독도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세종실록』의 「지리지」에 있는 '보인다'는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③에서는 똑 같은 '보인다'를 "울진현에서 울릉도가 보인다"고 읽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같은 섬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19세기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우산도를 삭제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세종실록』의 「지리지」에서는 우산도의 소재가 불명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산도의 소재가 확인되어, 지도에 올린 것은 박석창(朴錫昌)의 『울릉도 도형(鬱陵島圖形)』(1711년)④⑤ 부터입니다. 박석창이 우산도로 했던 것은, 울릉도 동쪽 약 2킬로 떨어져 있는 죽서(竹嶼)입니다. 이 우산도는 정상기(鄭尙驥)의 『동국대전도(東國大全圖)』⑥⑦에도 울릉도 오른쪽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독도 바로 알기』에서는 박석창의 『울릉도 도형』의 존재에 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정상기의 『동국대전도』⑧⑨는 이 지도를 근거로 울릉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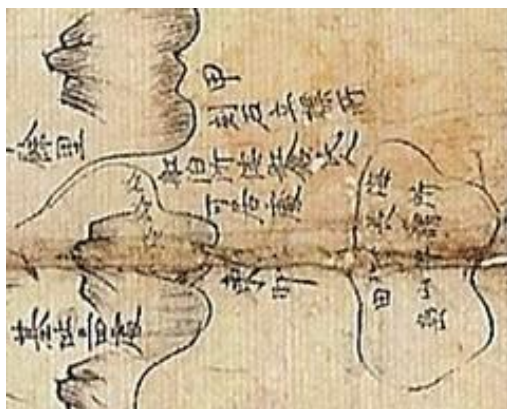
안용복은 조선 정부의 심문에 대해, “우산도는 일본의 마쓰시마다”고 공술했습니다. 그러했던 안용복이 일본에서는 “우산도(마쓰시마)는 울릉도(저동 - 亭洞) 동북(오른쪽 위)에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석창의 『울릉도 도형』에 그려진 ‘소위 우산도’가 안용복이 말하는 우산도입니다. 안용복이 “우산도는 일본의 마쓰시마다”고 한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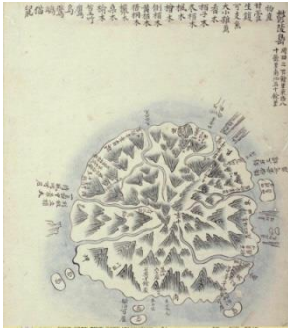
③ 『팔도총도(八道總圖)』(『신증동국여지승람』)



④ 박석창 『울릉도 도형』(1711년)



⑤ 박석창 『울릉도 도형』(부분), ‘해장죽전(海長竹田 - 해장죽이 있는 곳), 소위 우산도’



⑥ 『해동지도(海東地圖)』의 「울릉도」(주, 박석창의 『울릉도 도형』 계통)



⑦ 정상기 『동국대전도』(부분) (주, 박석창의 『울릉도 도형』 계통)



18세기에 제작된 정상기의 『동국대전도』를 19세기에 그대로 옮겨 그린 지도야. 울릉도의 동쪽에 독도(于山)가 그려져 있어.



⑧ 『동국대전도』(주, 박석창의 『울릉도 도형』 계통지도)



18세기 말에 제작된 『여지도』에 수록된 『아국총도』라는 지도야. 화려한 색깔이 돋보이는 지도지. 울릉도의 동쪽에 독도(于山)가 그려져 있고 섬 안에 산봉우리도 표시되어 있어.



⑨ 『아국총도(我國總圖)』(주, 박석창의 『울릉도 도형』 계통지도)

(4) 『독도 바로 알기』에는 『삼국사기(三國史記)』(지증왕 13 년)를 근거로, 우산국은 이사부 장군에 의해 신라의 영토가 되었고, 그 중에 독도가 있었다. 그러므로 독도는 512 년부터 한국령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는 우산국을 “바다 위에 있는 섬나라로, 다른 이름은 울릉도. 사방 백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산국이 울릉도였다는 것, 그 범위는 ‘사방(地方 - 땅 둘레) 백리’라는 것으로 하나의 군현(郡縣) 정도의 넓입니다. 더욱이 독도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산도에 대해서는 『삼국유사(三國遺事)』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에서 확인하면, 우산국의 일주(一周, 한 바퀴)는 ‘주회(周回) 2 만 6 천 7 백 30 보(1 보(步)는 약 1.6m)’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울릉도 일주 도로와 거의 같은 거리입니다. 우산국은 ‘사방 백리’, ‘주회 2 만 6 천 7 백 30 보’의 울릉도 한 섬이었던 것입니다. 독도를 우산도의 부속섬으로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되는 문헌을 제시하고, 논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한, 독도를 우산도의 부속섬으로 보는 것이나, 512 년부터 한국의 영토였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상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 내용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는 증거에 대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역사와 실제 역사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의 역사에 관해 생각할 때에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증거가 되는 문헌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 바로 알기』로 배웠던 여러분에게 있어서 텍스트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문헌으로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일도 역사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입니다. 텍스트를 한번 더 읽고, 제가 쓴 문장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편지로 보내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마네 현 다케시마연구회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